

사생활 등 권리와 관련하여 본지 보도로 상해를 초래하지 않음
임핑 다이내믹스 컨트리 클럽
 ● 광주·동광명IC 구간 광복 동원드 관동 (명동출발점)IC 영수증 프린트 서비스
 ● 우천시 9월 이후 출발요금정산제 실시
 ● 예약 : www.hpdynamic.co.kr 0801-320-7700



‘李’ 챔프 향해 ‘거포 장전’

승엽

日 프로야구 요미우리 VS 세이부
내일부터 7전4선승제 재팬시리즈

일본프로야구 최정상을 가리는 일본시리즈(7전4선승제)가 내달 1일 오후 6시15분부터 도쿄돔에서 열린다. 지바 롯데 마린스에서 한 차례 일본시리즈 챔프에 올랐던 이승엽(32·요미우리 라이온즈·사진)은 3년 만에 두 번째 우승을 향해 방망이를 곧추세운다.

요미우리와 세이부 라이온즈는 각각 센트럴리그와 퍼시픽리그 정규 시즌 우승을 차지한 뒤 리그 포스트시즌에서도 각각 주니치 드래곤스와 니혼햄 파이터스를 꺾고 일본시리즈에 진출했다.

각 리그 명문 구단을 자처하는 양팀이 일본시리즈에서 맞붙기는 2002년 이후 6년 만이다. 현 사령탑 하라 다쓰노리가 이끌던 요미우리는 당시 세이부를 4-0으로 완파하고 축배를 들었다.

그러나 세이부는 전신 니시테쓰 시절까지 포함해 일본시리즈에서 요미우리에 6승3패로 앞서 자신감이 있다. 올해 인터리그에서도 3승1패로 요미우리를 눌렀다.

1차전 선발투수는 우에하라 고지(요미우리)-와쿠이 히데아키(세이부) 두 오른손 투수가 예상되는 가운데 현 지 언론은 시즌 막판 13게임 차를 극복하고 극적인 역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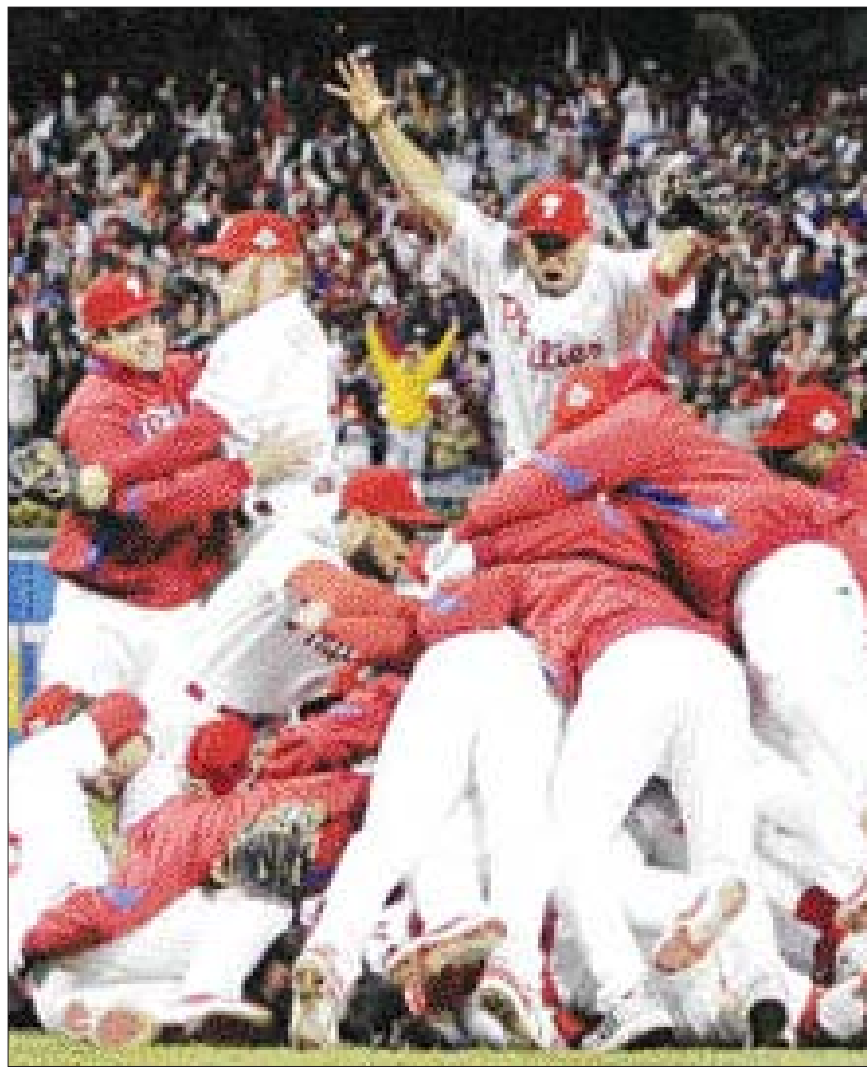
우승을 일궈낸 요미우리가 우승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요미우리가 홈포로 화끈한 야구를 추구한다면 세이부는 파워에 기동력까지 겸비한 공격의 짜임새가 돋보인다.

요미우리는 팀 홈런 177개로 리그에서는 유일하게 팀 득점(631점) 600점을 넘었다. 4번 알렉스 라미레스가 45개, 3번 오가사와라 미치히로가 36개, 아베 신노스케가 24개로 뒤를 이었다. 라미레스와 오가사와라는 각각 타율 0.319, 0.310을 때려내며 정확성과 파괴력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쳤다. 타격 부진으로 2군에 있다 베이징올림픽을 거쳐 시즌 막판 가세해 홈런 8개를 타뜨린 이승엽이 컨디션 회복하면서 요미우리의 홈런 생산 능력은 더욱 좋아졌다. 2005년 일본시리즈에서 한신 타이거스를 상대로 4경기에서 11타수 6안타, 홈런 3방을 몰아치며 6타점을 올리고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던 이승엽은 두 번째 우승 찬스를 맞았다.

결림들은 세이부의 좌투수다. 특히 좌완 이시이는 이승엽의 ‘천적’이다. 좌완 호아시, 홀드 25개를 올린 불펜의 핵 호시노 도모키, 마무리 그라만까지 세이부 마운드의 중심축은 왼손이다.

올해 타율 0.248로 시즌을 마감한 이승엽은 우투수(0.296)에게는 강했으나 좌투수(0.194)에게 고전했다. 또 다른 우완 셋업맨 오카모토 신야는 주니치에서 뛰었던 투수로 이승엽의 습성을 잘 알고 있다. /연합뉴스

필라델피아 월드시리즈 우승



30일(한국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시티즌스 뱅크 파크에서 열린 탬파베이 레이스와의 월드시리즈 5차전에서 필라델피아 선수들이 4-3 승리를 거두며 4승1패로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한 뒤 한데 뒤엉켜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13년 만에 500만 관중을 돌파한 프로야구의 열풍이 ‘가을잔치’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30일 두산 베어스와 SK 와이번스의 한국시리즈 4차전의 입장권 3만5000장이 경기 시작 전인 오후 5시10분에 매진, 지난 11일 대구구장에서 펼쳐진 삼성과 롯데의 준플레이오프 3차전 이후 11경기 연속 매진 기록이 이어졌다.

앞선 29일 한국시리즈 3차전에서는 한 경기 최고 수익인 5억366만원이 달성됐다. 역대 포스트 한 경기 최대 입장 수입이 달성된 이날 SK와 두산은 명승부로 팬들의 성원에 화답했다.

레이번과 이해천을 앞세운 마운드 대결

넘치는 가을잔치...KBO ‘미소’



SK-두산 3차전 한 경기 최고 수익 5억366만원

삼성-롯데 준PO 3차전 이후 11경기 연속 매진

속에 최승환(두산)과 최정(SK)이 홈런포를 주고받는 등 뜨거운 공방을 펼치던 두 팀은 SK가 3-2로 앞선 9회말 1사 만루, 베이징 올림픽 쿠바와의 결승전과 똑같은 상황을 연출했다.

게다가 결승전과 마찬가지로 SK의 정대현이 마운드에서 등장하면서 경기 분위기는 최고조에 달했다. 그리고 정대현은 ‘타격왕’ 김현수를 맞아 병살타를 유도하면서 올림픽 영광을 그대로 재연해 팀에 2승을 안겨주었다. /김영욱기자 wool@kwangju.co.kr

28년 만에 정상 탈환

팀 창단 이후 두번째 영예

필라델피아 필리스가 28년 만에 미국프로야구 정상에 섰다.

필라델피아는 30일(이하 한국시간)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시티즌스 뱅크 파크에서 속개된 월드시리즈 5차전에서 탬파베이 레이스를 4-3으로 제압, 시리즈 전적 4승1패로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했다.

1890년 창단한 필라델피아가 월드시리즈를 제패한 것은 창단 뒤 두 번째이자 1980년 밀워키를 누르고 정상에 선 뒤 28년 만이다.

가장 최근에는 1993년에도 월드시리즈에 도전했지만 토론토 블루제이스에 2승4패로 져 정상에 오르지 못했다.

정규리그 92승70패로 내셔널리그 동부지구 1위를 차지한 필라델피아는 내셔널리그 디비전시리즈와 챔피언십시리즈에서 밀워키 브루어스와 LA 다저스를 차례로 꺾고 월드시리즈에 올라왔다.

월드시리즈에서는 1차전과 2차전에서 탬파베이와 1승씩을 나눠 가진 뒤 이어진 3경기를 내리 잡아내고 여유 있게 우승을 차지했다.

반면 1998년부터 리그에 참가해 매번 꼴찌를 차지하다 처음으로 진출한 포스트시즌에서 월드시리즈까지 진출한 ‘꼴찌 반

망’의 주인공 탬파베이는 첫 우승의 감격을 다음으로 미워야 했다.

월드시리즈 사상 처음으로 서스펜디드 게임이 선언돼 이틀만에 재개된 이날 5차전은 양 팀이 2-2로 맞선 가운데 6회말 필라델피아 공격부터 시작됐다.

이 경기는 지난 28일 시작됐지만 경기 도중 폭우가 이어짐에 따라 서스펜디드가 선언됐고 29일 역시 비 탓에 취소돼 이틀 만에 경기가 이어졌다.

필라델피아는 경기가 2-2에서 속개되자마자 나와 우익수 킴을 넘기는 2루타를 친 지오프 젠킨스를 지미 톨린스의 희생번트로 3루에 보낸 뒤 제이슨 위그스가 전진 수비를 하고 있던 2루수 킴을 넘기는 행운의 안타를 터뜨려 균형을 깼다.

탬파베이는 곧바로 공수 교대 뒤 7회초로 발명기가 솔로 홈런으로 3-3을 만들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지만 필라델피아는 7회말 다시 선두 타자로 나선 팻 버벌이 좌중간 펜스를 직접 강타하는 큼지막한 2루타로 출루하면서 다시 기회를 잡았다.

필라델피아는 이어 세인 빅토리오의 2루 땅볼로 주자를 착실히 3루에 보낸 다음 페드로 펠리스가 중전 적시타를 터뜨려 결승점을 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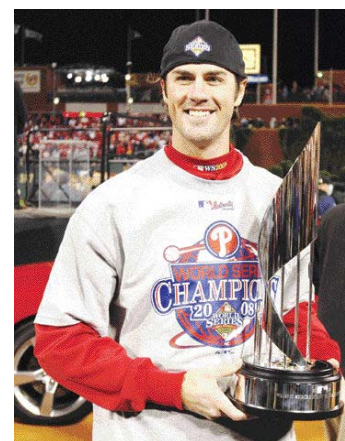
포스트 시즌 ‘무패 투수’ 해럴드 MVP

포스트시즌 무패 투수 콜 해럴드(25·필라델피아 필리스·사진)가 2008년 104번째를 맞은 미국프로야구 월드시리즈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됐다.

좌완 해럴드는 이번 가을 잔치에서만 5경기에 등판, 4승무패, 평균자책점 1.80의 뛰어난 투구를 펼쳐 소속팀을 28년 만에 월드시리즈 우승으로 이끈 공로로 MVP로 뽑혔다.

해럴드는 밀워키 브루어스와 디비전시리즈 1차전, LA 다저스와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시리즈 1차전, 탬파베이 레이스와 월드시리즈 1차전에서 모두 승리, 역대 4 번째로 3개 시리즈 1차전 승리투수라는 진기록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다저스와 리그 챔피언스에서 2승, 평균자책점 1.93으로 잘 던져 시리즈 MVP를 따낸 데 이어 월드시리즈 MVP마저 손



에 넣고 최고 투수로 우뚝 섰다. 둘을 함께 번에 휩쓸 수 있는 선수는 1997년 리만 에르난데스(당시 플로리다)가 처음이었고 해럴드는 다섯 번째다. /연합뉴스



애플클럽 역도 선수권 장미란 몸풀기 출전

‘여자 헤라클레스’ 장미란(25·고양시청·사진)이 내달 1일부터 경기도 고양시에서 시작하는 2008 아시아클럽 역도선수권대회에서도 세계신기록에 욕심을 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승우 여자 역도대표팀 감독은 30일 “장미란이 지속적으로 훈련을 받지 못해 아시아클럽대회에서는 전국체전 수준의 바벨을 들어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장미란은 지난 13일 전국체전 여자일반부 최종량급(+75kg)에 출전, 가볍게 3관왕에 올랐지만 인상 120kg, 용상 145kg을 들어 합계 265kg으로 비교적 저조한 성적을 냈다. 이는 2008 베이징올림픽에서 자신이 낸 세계기록 인상 140kg, 용상 186kg, 합계 326kg과 비교해 61kg이나 낮은 기록이다.

하지만 이 정도 기록은 일제감치 예견됐다. 지난 8월 올림픽을 끝내고 나서 각종 행사에 불려다니느라 훈련을 충실히 소화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 감독은 그러나 강력한 맞수 무송삼(24·중국)이 불참하면서 장미란이 이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데는 별 어려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오 감독은 “아시아클럽 대회에서는 무리하지 않고 중량에 도전할 것”이라면서 “내년 고양에서 열린 세계역도선수권대회에 초점을 맞춰 훈련을 진행해 가겠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LPGA 하나은행-코오롱 챔피언십 오늘 개막



31일부터 사흘간 인천 영종도 스카이72골프장 오션코스(파72·6천4680야드)에서 열리는 LPGA 하나은행-코오롱 챔피언십을 앞둔 30일 프로암 대회에서 신지애(왼쪽)와 모건 프리셀이 드라이버 샷을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